



# '코미디 多 웃자GO' - 만수동 1970'S



OBS 경인TV의 '코미디 多 웃자GO(이하 웃자고)'는 지난 4월 12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정통 코미디의 부활을 알렸다. 지금의 코미디는 개인기를 앞세운 스탠딩 공연으로 젊은 층을 공략했다면, 웃자고는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력과 살아 숨 쉬는 서사적 이야기를 비공개 콘트로 중장년층에게 웃음을 선사한다.

웃자고는 매주 일요일 밤 11시 시청자를 찾아간다. 각각의 코너들은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을 풍자해 마음 속 여운이 남는 웃음을 이끌어낸다. 현재 다섯 개 코너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코너는 '만수동 1970'S'다. 베테랑 연기자 이봉원, 김지선, 김한석 등이 주인집과 셋방살이 가족 사이에서 일어나는 해프닝을 익살스럽게 보여주며 추억의 향수를 자극한다.



## 리허설

OBS 경인TV 스튜디오에서는 '웃자고' 프로그램의 메인 코너인 '만수동 1970' S'의 리허설이 한창 진행 중이다. 모두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8월의 무더위가 무색하다. 대본을 숙지하며, 리얼한 동작이 나올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에서 동선을 확인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의견을 제시한다. 베테랑 연기자 이봉원 씨는 술선수범의 자세로 재미있는 아이템을 내놓으며 녹화장 분위기를 띄우고, 어느덧 만식이 된 김지선 씨도 몸을 사리지 않는 열연으로 후배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만수동 1970' S는 70년대 초, 서민이라면 거의 다 셋방살이를 했던 힘들고 가난했지만 꿈이 있었던 가족 간의 깊은 우애를 잘 표현한 콩트다. 주인집은 김한석 씨가 맛깔스럽게 연기하고, 셋방살이는 이봉원 씨와 김지선 씨가 부부로 호흡을 맞추며 즐거운 웃음을 선사한다.

1시간 중 20분이 넘는 시간을 배정할 만큼 비중 있는 코너로 각자의 캐릭터를 잘 살려 매번 한편의 시트콤을 보는 느낌을 준다. 캐릭터가 잘 살아있어 하나의 해프닝을 주면 자신의 캐릭터에 맞는 말투와 행동들로 극을 완성시킨다. 자연스러운 연기와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올 때까지 노력은 계속된다.



## 해프닝

70년대 초, 텔레비전과 냉장고는 부의 상징이었다. 집 냉장고에 열려 먹는 '아이스끼끼'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여름철 간식이었다.

이번 녹화는 70년대 부의 상징인 냉장고가 주인집에 들어오면서 이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해프닝이다. 지선네는 더운 여름 음식이 상한다며 남편(이봉원)을 타박하고, 봉원은 아이스박스와 얼음을 사가지고 온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자 얼음은 다 녹고, 반찬에는 물이 들어가 먹을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주인집에 냉장고가 들어오고, 짬뽕이 한석네는 시간당 돈을 받고 냉장고를 빌려준다. 하지만,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셋방살이 가족들은 상처를 받는다.

그러던 어느 날, "더러워서 안쓴다"던 봉원네가 냉장고의 시원함에 빠져 아예 냉장고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데...



### 웃음을 준다는 것

코미디 프로그램인 만큼 연습을 하면서도 많은 웃음이 나오고,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쏟아진다. 특히,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은 이봉원 씨다. 선배로써 더 많은 애드립을 던지고, "이거 재밌겠다" 하면서 다양한 자세들을 선보인다. 생각지도 못했던 행동들에 웃음이 터져 나온다. 여기에 김지선 씨의 입담이 가세하니 한층 부드러우면서도 섬세한 장면이 연출된다.

나의 생각엔 세상에서 가장 힘들 일은 '남을 웃기는 일'인 것 같다. 어느 정도의 타고난 재능도 필요하겠지만, 꾸준히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진정한 웃음을 만드는 것 같다. 시청자에게 웃음을 주기위해 아이디어를 내고, 꾸준히 노력하는 선배 코미디언들을 보며 코미디의 희망찬 앞날을 꿈꾼다.



유진영 프로듀서



현재식 기술감독

### 녹화

녹화가 시작되면서 웃음을 주기위한 진지함이 감돈다. 영상팀은 냉장고를 열어 내부에 카메라를 설치하느라 분주하고, 조명팀은 인물 사이에 그림자가 생긴다며 조명기기를 조절한다. 소품팀은 냉장고의 차가움을 표현하기위해 드라이아이스를 넣고 물을 뿌리고 한참 붙여댄다. 녹화준비가 끝나고 조용히 연출의 큐사인을 기다린다.

녹화가 한창 진행되더니, "잠깐만요, 다시 갈게요"라는 조감독의 말과 함께 문제가 있는 부분이 고쳐진다. 순식간에 다시 조용해지고 녹화는 시작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씬으로 넘어갑시다"라는 우렁찬 목소리가 적막한 스튜디오에 울려 퍼진다.

방송은 누구 하나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연출부터 작가, 연기자, 영상, 음향, 조명, 소품까지 최선을 다하고, 함께하는 것에 맞춰갈 줄 알아야 한다. 댄스 스포츠를 배우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매우 중시한다. 상대의 몸과 마음을 얻는 아름다운 운동이기 때문이다. 방송제작도 그러하다. 소품, 장비를 다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청자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도 늦은 밤까지 녹화가 계속된다. 카메라의 빨간불은 선명하고, 조명은 뜨겁게 달아오르며, 지쳐가는 마음은 한모금의 물이 달래준다.



조봉기 음향감독

### 웃자GO

웃자고는 만수동 1970'S 외에도 정치풍자 '100날 토론', 미래를 꿈꾸며 노력하는 백수들의 이야기 '신화창조', 강유미 특유의 익살로 풀어가는 '오자랴 미스강', 70년대 음악 다방을 연상시키는 'DJ전성시대'의 네 개 코너가 더 있다.

유진영 PD는 "애드립이 강한 공연의 웃음이 아니라, 개그맨들의 노련한 연기에서 나오는 푸근한 웃음을 선사하겠다"면서, "개편을 맞아 새로운 코너도 기획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찾으려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홍성진 조명감독



'코미디 多 웃자 GO'  
- 만수동 1970'S

